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역대 최대 국비 9조5892억원 확보 '원팀 공조' 빛났다	21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초교 18곳 '나 홀로 졸업식' 폐교위기 돌파 안간힘	22
江原日報	01면	道 글로벌혁신특구·철도망 확충 '운명의 한 주'	22
江原日報	02면	道 글로벌혁신특구·철도망 확충 '운명의 한 주'	23
江原日報	07면	강원 지역총소득 증가율 전국 두번째 높아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인들 하나로 똘똘 뭉쳐야 현안 해결된다	24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연말 고향사랑기부금 박차를	25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소상공인 경영 악화 대비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3곳 중 1곳 1년 내 문 닫는 신생기업, 대책은 뭔가	27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 27면

세계인 찾는 매력도시 도약 강원관광인 역량 총결집

2023 강원관광인대회 개최

산업진흥 협력 다짐·유공 표창

2024강원대회 성공 개최 결의

강원관광인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토대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공동주최한 '2023 강원관광인대회'가 지난 22일 평창 모나 옹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강원관광인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2023 강원관광



2023 강원관광인대회가 지난 22일 평창 모나 옹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열렸다.

인대회는 강원 관광인의 역량을 총결집,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진

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석기동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결의했다. 이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은 강원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고, 관광인 여러분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선 강원관광진흥에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3 강원관광인대회 관광진흥 유공 수상자 명단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기관)=△양양군 남해3리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개인)=△산림청령재단 하이힐링원 유도현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신규 △강원관광재단 최범순 △씨마크호텔 한용희 △한국관광공사 김소희 △양양군 관광문화과 김명옥 △(주)정호여행사 정현일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한승주 △안목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이정인 박지은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 21면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앞장”

강원관광인대회 4년 만에 대면 개최

양양 남해3리 해수욕장 운영위 등 표창

강원관광인들이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관광협회가 주최한 2023 강원관광인대회가 지난 22일 평창 모나 옹평 드래곤밸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석기동 도관광협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성현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학운 모나 옹평 대표 등 기관·단체장과 관광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관광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힘내라! 강원관광!”,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양양군 남해3리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도지사 기관표창을, 이신규 평창군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지원 결의문 채택과 함께 글로벌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관광협회가 주최한 2023 강원관광인대회가 지난 22일 평창 모나 옹평 드래곤밸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 관광업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석기동 강원도관광협회장은 “내년 1월 평창을 비롯해 강릉, 횡성, 정선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돕겠다”며 “강원관광업계의 역

량을 총결집해 도내 관광지 홍보와 손님맞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관광은 강원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고 관광인 여러분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며 “도와 업계가 함께 관광의 품질

을 높여 강원자치도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평창=조성원기자 jsw0724@※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2023년 12월 23일 (토)

江原日報

사회

'펀시티 원주' 첫발...야외 아이스링크 개장

피겨 꿈나무 갈라쇼로 문 열어...내년 2월11일까지 운영
원강수 시장"시민에게 행복,즐거움 주는 사업 속속 마련"



23일 개장한 원주 댄싱공연장 아이스링크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원주 '펀시티(Fun City) 원주'의 첫 스타트를 끊은 '야외 아이스링크'가 23일 문을 열었다.

원주시는 23일 명륜동 댄싱공연장에 마련한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송기현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시의원, 조남현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태 시체육회 부회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개장식에 앞서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의 피겨 갈라쇼가 분위기를 돋웠다.



원주 아이스링크 개장식이 23일 원주 댄싱공연장에 조성된 아이스링크에서 열렸다.

원강수 시장은 "올해 첫선을 보인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는 '펀시티 조성'의 첫발로 의미가 크다. 이를 기점으로 시민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댄싱공연장에 마련된 야외아이스링크에서 좋은 추억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외 아이스링크는 내년 2월11일까지 운영한다.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식에 앞서 피겨 꿈나무의 피겨 갈라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일반존(1,500m)과 키즈존(360m)으로 구분되며, 썰매를 탈 수 있는 키즈존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무료.

다만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스케이트와 안전모, 보호대 등 장비는 주최측이 준비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대여료는 1,000원이다.

2023년 12월 26일 (화)

江原日報

스포츠 23면

/ 도장애인체육인의 밤·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



◇강원특별자치도 2023 장애인 체육인의 밤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이 지난 22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직무 수상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승선기자

“장애인 체육직무 57명 채용 성과”

선수·단체에 체육인상 시상
본사 등 모범기업에 표창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2일 춘천 스키컨벤션 웨딩홀에서 ‘2023 장애인 체육인의 밤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진태 도지사,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상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올 한해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사업’을 통해 57명이 채용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향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고생 많으셨다. 내년에는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교육 정책을 더 확실히 할 것”이라며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

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사업’을 통해 8개 기업에 채용된 57명의 선수가 소개됐다. 이들에게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활용해 단복이 지급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1호 계약자인 강원일보 이상준(육상) 등 선수대표에게 특별 제작된 와펜을 전수했다. 사업에 힘쓴 김상구 지시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고, 강원일보를 비롯한 채용 기업들은 표창장을 받았다.

장애인 체육인상의 영예는 도 장애인농구협회(가맹단체상), 김미진 도장애인육상연맹 지도자(지도자상), 조은건 도장애인육상연맹 선수(우수선수상), 고원찬 도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신인선수상), 동해시보호작업장솔런교실, 삼척시시각장애인볼링동호회(이상 생활체육우수단체상), 권태운 도장애인체육회 지도자(우수경기지도자상), 전소연 홍천군장애인체육회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상)에게 돌아갔다. 권순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스포츠 22면

강원 장애인 체육 유공자 포상·내년 선전 다짐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인의 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2023 장애인체육인의 밤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용주 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 및 선수, 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장애인체육회 3개 기관이 추진한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사업'을 통해 강원랜드 등 8개 기업에 채용된 선수 57명이 소개됐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선수 대표에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와펜(Team Gangwon state)을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 이어 체육직무 시상식, 올해 장애인 체육인상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또 지난 10월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은 달 열린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23 장애인체육인의 밤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이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도장애인체육회

에서 강원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올해 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사업을 비롯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전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 푸른 용의 해에도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교육 정책을 더 확실하게 할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문화 24면

치유문화 중심에서 '녹색올림픽·기후행동' 외치다

▼심재국 평창군수, 김진태 도지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 김주영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최초연 평창 진부중학교 총학생회장(사진 왼쪽부터)이 예코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월정사 노인요양원의 동지 팔죽 나눔행사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공연을 벌이고 있다.

▶양태환 기타리스트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오대산 예코 선언문을 낭독하는 최초연 학생

지구를 위해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불편하게, "기후행동 실천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문화제"가 평창을 비롯해 원주와 강릉, 동해에서 '녹색 겨울을 위해- We Go High for Green Winter'를 주제로 열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내년 1월 19일 강릉·평창·정선·횡성에서 개막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성공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평창지역 한마음으로 기후위기 극복 다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친환경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치유문화의 중심 오대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지난 22일 평창송어종합경기체양장에서 월정사 노인요양원과 탄소중립녹색전환 평창군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평창 캠페인에는 김진태 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 김주영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오대산 예코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또지광천·최종수 도의원, 김성기군의회부의장, 이창열·남진삼·김광성·이은미·박춘희군의원, 정장호평창교육장, 김충우평창경찰서장, 김용한평창소방서장, 이주한진부농협조합장, 정일섭도료보분부장, 현근서도문화유산과장, 장동주평창군변영회장과황봉구진부면변영회장, 김강석평창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전금자평창군새마을부녀회장, 장미숙군새마을금고회장, 김부은월정사평창군연합신도회장과회원, 월정사 재무국장 덕영스님을 비롯한 월정사 사중 스님, 김학배천주교춘천교구사회사목국장, 차홍길진부성당주임신부, 김용래진부면이장협의회장, 곽홍재평창군자원봉사센터장, 김영애평창군관광협의회장, 함영애평창지속

도·평창군·월정사·천주교 춘천교구·본지 평창캠페인서 '오대산 예코 선언문' 채택 지역주민·사회단체·종교계 등 대거 참석 기후위기 극복·지속가능 상생문화 맞춘

친환경 '2024강원대회' 성공 개최 다짐 에너지 절약·탄소배출 줄이기 등 약속 둔전평농악대 길놀이 따라 플로깅 진행 동지팔죽 나눔·축하공연 분위기 후끈

가능발전협의회장, 최종만 진부면건강협의체 건강위원장, 손태호진부신협이사장, 남성열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기성 평창송어축제위원장, 지형근한강시원지체협관장, 강태준진부면노인회장, 강릉영동대와 가톨릭관동대 대학불교연합회 학생 등 지역사각계에서 대거 참석,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평창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오대산 예코선언문·기후행동 도민 약속 옹호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 월정사, 천주교 춘천교구,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채택한 '오대산 예코 선언문'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상생문화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친환경경로로 성공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 낭독은 최초연 평창 진부중학교 총학생회장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행동 도민 약속' 서약서는 친환경경로로 제작된 가운데 '지구를 위한 분리수거방법' 도담겨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

약서에는 생활용품과 에너지를 아끼기, 계단과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 채식 위주의 식생활 등의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2023오대산예코포럼'에서는 의했던 문제를 확대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포럼 토론자로 참석했던 최종수 도의원은 "기후위기로 오대산의 전나무숲과 가문비나무, 구상나무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강원에서 자발 발생하는 산불 역시 산소중립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런 문제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쉬운 것만 가지라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참여 환경정화·팔죽 나눔 병행

축하의 날씨 속에서도 평창 주민들과 가톨릭관동대·강릉영동대의 대학생교원연합회 회원·학생들은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의 길놀이와 더불어 진부면 일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정화와 실천에 앞장섰다.

학생들은 '탄소흡수원 오대산 산림보호', '기후행동 실천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탄소중립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절약, 재활용 실천' 등 '전환, 순환, 자족, 참여'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소식(笑食), 음식을 탐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소식(小食), 채소를 중심으로 먹는 소식(蔬食)을 권장하는 산소식 운동 캠페인과 함께 월정사 노인요양원에 준비한 팔죽 나눔이 이어져 서로를 위한 행운을 빌었다. 평창군자원봉사센터도 현장에서 차나눔 봉사로운기를 나눴다.

축하공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올랐던 화천 출신 강원미래인재 양태환 기타리스트가 맡았다. 올림픽 당시 13세였던 그는 18세 청년으로 성장, 폐막식에서 선보였던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연주하며 당시의 감동

을 다시 전했다. 제1회 강원도 경로당 실버트트 대회 우수상 수상자 이규송(철원) 가수도 곡 '평대'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랐다.

종교 넘어 구체적 실천 약속

강원특별자치도 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천주교 춘천교구장(시몬주교)과 조계종제3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은 기후위기 문제와 소외 없는 지역만들기 등 사회적 의제 해결에는 종교가 따로 없다는데 공감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행사에 참석한 김주영 주교는 "수많은 선언문이 나와도 선언과 호소에만 그치면 선언의 뜻을 새기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수행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념스님은 '예멘동산과 극락정토는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정념스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분별이 생겨났다. 분별을 내려놓는 것은 예멘동산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극락정토다. 지극한 하나님의 뜻을 깊게 통찰하면 예멘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월정사 등 지역 불자들과 진부성당을 비롯한 지역 천주교 신자 등도 한 자리에 모여 실천을 다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1854년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땅을 팔라고 요구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남긴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반짝이는 술ыл, 모래사장, 어두운 숲의 안개, 박초지, 왕왕거리는 벌레. 모두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입니다. 대지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지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내용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김여진·김진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문화 25면

“탄소중립 관심 필요, 기후위기 극복 초석될 것”

동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문화제’의 동해 캠페인이 22일 동해 천곡동 시청 앞 로터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도민일보와 오대산월정사·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이 ‘오대산 에코포럼’과 연계해 공동 개최, 동해 삼화사와 월정사복지재단 삼화사노인요양원이 주관한 이날 친환경 캠페인에는 고석민 동해부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김영근 강원도민일보 이사, 월정사복지재단 사무국장 지철스님(월정사 사회과장), 유순욱 도의원, 이창수·안성준·정동수 시의원, 지역 불교 지도자와

불자대표 등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다.

권은희 삼화사요양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지철스님이 ‘오대산 에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동해불교신도연합회 회원들과 시민 등 참가자들은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섰다. 동지를 기념해 삼화사·삼화사노인요양원이 마련한 팔죽·팍시루떡·달력 나눔행사를 통해 이웃들과 온기도 나눴다.

지철스님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시기”라며 “자찰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설테니 시민들도 실천해 달라”고 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문화제’의 동해 캠페인이 지난 22일 동해 천곡동 시청 앞 로터리에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다. 고석민 부시장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친환경 대회로 성공 개최되도록 동해시도 최대한 지원하고, 도가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지역이 되는 데 힘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동호 시의장은 “지

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지역 14면



삼척 자율방범대 정기총회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 및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삼척시청에서 박상수 시장, 최승주 강원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장, 심영근·조성운 도의원, 양희전 삼척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지역 10면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 송년의 밤 ‘2023년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22일 홍천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김광수·용준순·이광재 홍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지역 18면



화천체육인 화합의 밤 '2023 화천 체육인 화합의 밤' 행사가 최근 화천여성회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와 송호군 군체육회장,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군의원들을 비롯해 체육회 이사, 각 종목 협회장과 지도자,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 26면

김용래 도의원 지방자치 의정정책대상

김용래 (강릉·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최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



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등을 발의했고, 강원도의회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조례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도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12월 25일 (월)

사회

'2023 홍천예술인의 밤' 행사 개최





한국예총 홍천지회(회장:백금산)는 21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홍천예술인 6개 지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홍천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김광수·용준식·이광재·황경화 군의원, 이재한 한국예총 강원자치도연합회장, 장홍균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자치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천예술발전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황영래 홍천음악협회장과 장유신 홍천군 주무관이 강원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백금산 한국예총 홍천지회장과 사현진 홍천지회 팀장이 한국예총회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5일 (월)

사회

홍천다문화가정 후원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성료



사단법인 홍천다문화가정 후원회(회장:윤성일)는 21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2023년 (사)홍천다문화가정 후원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재 군수,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용준식.황경화 군의원, 오인철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장, 이인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성금 전달식도 열렸다. 윤성일 홍천다문화가정 후원회장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명복지재단 1,000만원, 하이트진로(주) 강원공장 500만원,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회장 200만원, 대한민국 홍천군월남전참전자회 100만원,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홍천군분회와 태권도협회에서 각 500만원, 홍천군유도회 100만원, 이상민 오룡싱글 대표 100만원, 박영록 신경외과와 송재용 신경외과에서 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2023년 12월 25일 (월)

사회

江原日報

홍천군유도회 '2023 하나되는 유도인의 밤' 개최





홍천군유도회(회장:김영권)는 22일 홍천 크리스탈웨딩홀에서 '홍천군유도회 2023 하나되는 유도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황경화 군의원,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 박태원 홍천군유도스포츠클럽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활동영상과 함께 지도자 표창, 홍천군체육회장 표창, 각 유도회장 표창 등이 홍천 유도 꿈나무들에게 수여됐다.

김영권 홍천군유도회장은 "자라나는 홍천 유도 꿈나무 선수들의 올해 대회 출전 및 성적이 매우 뛰어나 홍천 유도발전과 부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천군유도스포츠클럽 박태원 이사장은 "학생 선수들이 건강과 인성 등을 모두 겸비한 홍천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학생들과 함께 홍천 유도인들이 다함께하는 유도인의 밤 행사가 뜻깊고 감사하다"며 "홍천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홍천군유도회 임원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5일 (월)

사회

江原日報

홍천지역 봉사단체 (사)이웃 '후원의 밤' 성료



홍천지역 봉사단체 사단법인 이웃(이사장:박학천)은 20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후원의 밤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과 각계 후원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홍천팍스오케스트라의 현악앙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시낭송, 내빈소개, (사)이웃 활동 영상시청, 시상식, 장학금 전달식, 후원금 전달식, 축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은 (사)이웃 장학회 박영록(박영록 신경외과 원장) 위원장의 인재육성 지정 장학금으로 홍천고 3학년 학생 2명과 홍천여고 3학년 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 100만원씩 전달됐다. 또 후원금 전달식에는 박학천 (사)이웃 이사장 2,200만원 박영록 박영록신경외과원장 1,000만원 비콘힐스골프클럽 500만원 MG홍천새마을금고 300만원 이충환(주)바우팜 대표 100만원 함혁근 예인건설(주) 대표 100만원 한성훈 아산약국 약사 100만원 (사)중소기업융합 홍천융합회 연탄 3,000장 김희두 (주)이건약품 대표 1,800만원 상당 멀티비타민 장용규 한미약품(주) 부장 400만원 상당 물품 박현선 (주)서민식품 대표 200만원 상당 식품 등을 기탁했다.

2018년 28명의 마음이 모여 시작된 자생봉사단체 (사)이웃은 현재 600여명의 회원으로 확대 발전해 올 한해 5만여장의 연탄배달과 1만6,000 의 난방유 전달,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54명에 5,500만원 지원, 주거취약계층 2가구에 집수리 전개, 긴급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3억여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박학천 이사장은 "작지만 따뜻한 기적을 전하는 연탄과 같이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희망을 전하고 있는 (사)이웃의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나눔 문화확산에 적극 참여해 함께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25일 (월)

江原日報

사회

[포토뉴스]2023년 고성군 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



2023년 고성군 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이 지난 22일 파인리조트 연회장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함득용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과 6개 농업인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5일 (월)

지역

정선군 체육인의 밤 행사...320여명 화합 한자리



▲ 정선군체육회는 지난 22일 정선종합경기장내 실내체육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장, 강신열 군체육회장, 신동란 정선교육장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정선군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정선군 체육인의 사기진작과 및 화합과 연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정선군체육회(회장 강신열)는 지난 22일 정선종합경기장내 실내체육관에서 '2023 정선군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신동란 정선교육장, 이근식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장,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소장, 1사1스포츠 협약기관, 체육회 이사, 수상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체육회는 이날 12개부문 41명에게 표창과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패는 김남균 정선군검도협회장이 수상했다. 김기호 군족구협회장·배대규 신동읍체육회장·문대수 군체육회 이사는 군수 표창패, 윤봉득 군농구협회장·전학규 군체육회 이사·유경욱 군수영연맹 전무이사는 군의장 표창패, 문금수 군골프협회장·김재성 군청 문화체육과장은 국회의원 표창장, 한혜숙 유도 지도자·김제일 군청 체육진흥팀장은 정선교육장 표창장, 정일환 군산악연맹회장은 대한체육회장 표창장, 라득주 군배드민턴협회장·김택훈 사북중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

김수현 사북읍여성자율방범대·이방현 한국부인회정선지회 회원은 정선군체육회장 감사패, 장청일 군당구연맹회장·김동기 군체육회 이사·황 산 군게이트볼협회 전무이사·최돈준 군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장·최태순 군소프트테니스협회 고문은 정선군체육회장 공로패, 이동호 정선군청 사격팀 감독·김수현 고한중 육상 지도자·배수인 사북초 유도 지도자·박상순 하이원스노보드지도자·김정훈 레슬링 감독·김지훈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는 우수지도자로 군체육회장 표창장과 함께 2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우수선수로 선정된 유재진 정선군청(사격)·박민희 정선군청(육상)·유찬하 정선고(사격)·최수인 설악고(태권도)·지현진 정선정보고 졸(합기도)·박우림 속초여고(육상)·장제민 고한초(스노보드)·김슬아 사북초(유도)·이준 사북초(유도)·전가은 정선중(육상)·전찬민 사북중(태권도)·전성택 정선중(수영)·유환웅 화동중(소프트테니스) 선수는 군체육회장 표창장과 함께 30만원의 격려금을 수상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4×100m 혼계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선초교 출신 고하루(강원체중) 선수에겐 표창장과 함께 장학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유주현 joohyun@kado.net

2023년 12월 26일 (화)

지역 18면

강원도민일보

철원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여가문화 창출 주목

지상 4층 규모 문화공간 준공
영화관·장난감 도서관 등 조성
주민 복리증진·랜드마크 기대

철원군 김화읍과 서면, 근남면 등 김화권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복합센터인 와수복합어울림센터가 최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철원군 김화권역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세워진 와수복합어울림센터는 작은영화관 달빛을 비롯해 체력증진실, 어린이 돌봄 공간으로 장난감 도서관 등이 꾸려졌다.

특히 센터 4층에는 작은영화관 달



철원군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최근 이현중 군수, 박기준 군의장, 엄기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빛이 운영, 극장이 없어갈말권·철원 동송권의 작은영화관 등 다른 지역 극장을 찾아야 했던 서면 지역주민과 군장병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철원군 와수복합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접경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에 선정돼 국비 130억원을 투입,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905㎡ 규모로 준공됐

다. 철원군은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준공으로 국방개혁 등 접경지역 경제적 어려움을 민·군·관이 함께 해소해 나가고 상호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축하드린다”며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준 철원군의장은 “김화권의 중심지 와수리에 생겨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재용

2023년 12월 22일 (금)

사회

강원종합복지신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송년행사 ‘입암의 이밤’ 개최

서영석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제완)은 지난 12월 20일 한 해 동안 마을의 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후원자 및 협력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입암의 이밤’ 송년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해량 스님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등 내빈과 자원봉사자·후원자, 협력 기관 담당자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 전시회 및 후원 캠페인 등 부스 운영과 더불어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표창,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 발표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감사패 및 표창은 강릉시장상 유희숙(우수 자원봉사자), 강릉시의회 의장상 김육수(우수 후원자), 국회의원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우수 자원봉사단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상 성덕동소상공인연합회장 홍영숙, 성덕동주민자치위원장 윤세기(우수 지역협력),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상 성덕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김정경(우수 지역협력)이 수상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류제완 관장은 “한 해 동안 복지관과 함께해 주신 여러 주민, 단체들의 헌신과 노고로 우리 마을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목표를 위해 서로 소통하며 계속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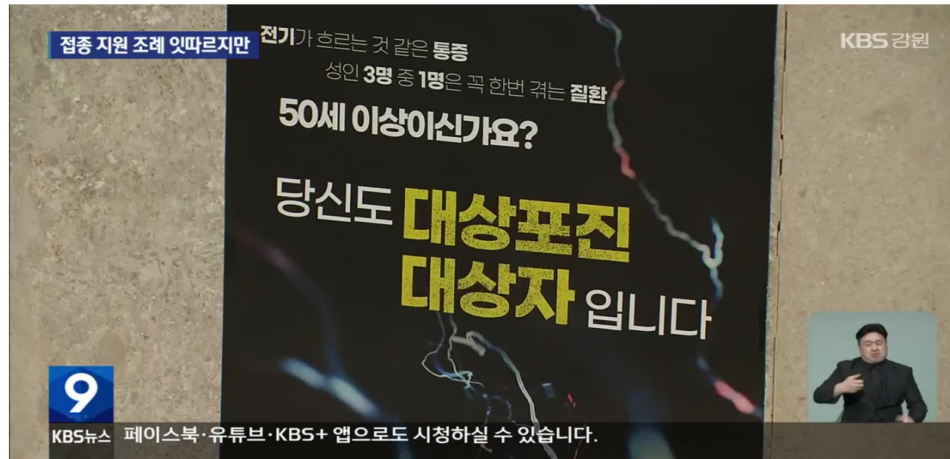
서영석 기자 gwelfare@gmail.com

2023년 12월 23일 (토)



강원

대상포진 접종 지원 조례 잇따르지만 '예산 부담'



앵커

몸에 긴 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은 특히,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만들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실제 접종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에 긴 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

노인들에겐 신경통 등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40만 원으로 비쌉니다.

[유근중/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노인환자에서 통증도 더 심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서, 비용의 문제로 접종을 선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대상을 애초 50살 이상 모든 주민에서 조건별로 차등화했습니다.

시행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윤병근/춘천시 방역관리과장 : "대상자는 4천여 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7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강릉시도 내년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단, 대상은 80대 이상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최정숙/강릉시보건소 예방관리담당 : "80세 이상 대상자이시고요. 아무래도 그 대상 포진 주사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는 곳은 15곳.

하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 대상과 연령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일각에선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영/강원도의원 : "지역 간 의료격차가 빈익빈 부익부로 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도, 광역지자체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65살 이상 노인 수를 따질 때 비용이 한해 1,000억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까지 나와 실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임서영 mercy0@kbs.co.kr

2023년 12월 22일 (금)

강원종합복지신문

사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023 후원자·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이성근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이성근 기자]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현숙)은 지난 12월 18일 약 130명의 후원자·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식, 감사영상 상영 및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올해의 우수유공자 표창은 원주시시장상에 김성남·허필성 후원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에 이근혁·현재현 후원자, 원주시의회의장상에 도순이·손창우 후원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장상에 김승희·전명자·정선영 봉사자가 수상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정금자·채재영 봉사자가 VMS 봉사시간이 각 3000시간, 1000시간에 도달해 골드3와 골드배지를 받았다.

유공자 표창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명륜2동 이금자 부녀회장이 1백만원을 후원해 2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했고, 오랜 기간 정기후원을 이어 온 익명의 후원자는 결연 청소년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만남의 날’이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정상 진행됨에 따라 많은 후원자·자원봉사자가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나눴고, ‘한 해 동안 활동한 나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써보는 온기캡슐 및 베스트드레서 이벤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강원남부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및 봉사자가 함께 만든 쿠키가 답례품으로 준비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시장으로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성근 기자 gwelfare01@gmail.com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2일 (금)

지역

똑똑해진 평창 진부도서관 ICT 입고 새 단장

군 20억원 투입 시설 리모델링
 북큐레이션·인터랙티브월 설치
 열람실 내 디지털 자료실 구축



▲ 평창군은 21일 군립 진부도서관에서 진부도서관 새 단장 개관식을 가졌다.

평창군립 진부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하고 21일 재개관했다. 평창군은 21일 오후 진부도서관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부도서관 새 단장 개관식을 가졌다.

진부도서관 새 단장 사업은 국비와 도·군비 등 모두 20억원을 들여 지난 4월에 착공, 시설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 도서 확충 등을 마쳤다.

도서관의 지하층은 서고와 문화교실, 동아리실 등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지상 1층은 도서 열람 및 컴퓨터 이용 등 자료실과 휴게실로, 지상 2층은 학습실, 강당, 전산교육실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과 공연, 강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서관은 특히 ICT 장비로 북큐레이션과 인터랙티브 월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북큐레이션은 이용자가 그간 대여한 책을 분석해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인터랙티브 월은 어린이들이 동화 등 원하는 도서를 벽면을 터치해 가며 시청각을 활용해 책을 볼 수 있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습공간과 열람실을 분리해 열람실에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는 등 단순히 독서공간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으로 꾸몄다.

진부도서관의 새 단장 개관에 따라 진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독서와 학습, 문화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유증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재국 군수는 "진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통과 열린 독서 공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태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동정 11면



최재민 도
의원은 26
일 오전 10
시 원주교
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년 원주교육발
전자문위원회에 참석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동정 11면



박윤미 도
의원은 26
일 오전 10
시 30분 원
주여성인

력개발센터에서 열리
는 원주여성인력개발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인물동정 21면

◇홍성기(홍천)도 의원은 26



일 오후 2시 강원
특별자치도청 본
관 2층 소회의실
에서 열리는 첨
단 스마트농업단

지시설·관리 운영 수탁기관 선
정심사위원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12월 25일 (월)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시설·관리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

박윤미(원주)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

최재민(원주)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원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년 원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

2023년 12월 26일 (화)

강원도민일보

종합 01면

강원 총소득 첫 50조원 돌파 '상처뿐인 영광'

전년비 3조4120억원 증가 불구
세종·제주 다음으로 가장 적어
1인당 소득 2239만원, 전국 하회
고소득 산업 전환·경쟁력 시급

강원특별자치도 총소득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 이어서 강원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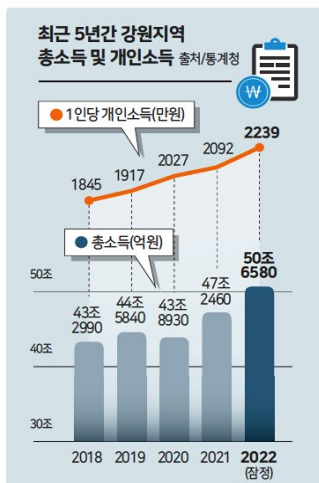
25일 통계청이 밝힌 '2022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총 소득은 50조658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강원지역 총소득은 전년(47조2460억원)대비 7.2%(3조4120억원) 증가하며 전국 증가율(4.3%)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소득 유출규모는 2021년 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이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총소득은 세종(16조원), 제주(23조원)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경기(597조원)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총소득은 50조원을 넘어섰지만 강원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2239만원으로 전년(2092만원) 대비 147만원(7%)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전국 평균(2339만원)을 여전히 밑돌았다.

강원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1위다. 1인당 개인소득 1위인 서울(2611만원)과 비교해 372만원(14.2%)이나 차이가 났다. 강원도는



엔데믹과 함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국 격차는 여전, 고소득 산업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원지역 경제성장률은 숙박·음식점업 등의 호조로 3.0%를 기록, 전국 평균(2.6%)을 0.4%p 상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17.1%), 사업서비스업(8.8%) 등 서비스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내총생산은 52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51조2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2.6%),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443만원으로 75만원(2.2%) 증가했다. 다만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2.4%에 그쳐 다른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도민 소득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종합 02면

도, 역대 최대 국비 9조5892억원 확보 '원팀 공조' 빛났다

올해 확보액 대비 5709억원 증가
국회 심의서 725억원 추가 반영
첨단산업 육성·현안 해결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국비 9조5892억원을 최종 확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다. 정부 건축재정 기조속에서도 강원도는 지난 9월 정부안에만 영된 국비 9조 5167억원을 감액없이 사수하고, 강원핵심 증액사업을 대거

반영시켜 국회 심의에서 7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반도체 등 강원형 첨단산업과 강원오피라하우스 등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 지역현안 해결 및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최종 국비 확보액은 9조58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도가 최종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2023년 확보액인 9조 183억원 대비 5709억원(6.3%)가 증가한 규모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및 증액에 대한 논의가 대립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당초 정부안(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순감된 656조 6000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 국비 확보 성과를 받았다.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확보내역은 △강원오피라

하우스 건립 설계용역비 30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10억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WT)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출센터 구축사업 4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56억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12억원 △국내 유일의 전기차 성능복합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사업비 15억원 등이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국

회심의 단계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선정, 정부안 미반영 원안 파악 및 대응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해 도지휘부, 도정치권 등이 원팀 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도민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박지은

2023년 12월 26일 (화)

종합 04면

강원도민일보

도내 초교 18곳 '나 홀로 졸업식' 폐교위기 돌파 안간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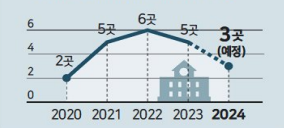
홍천·정선 각각 4곳 가장 많아
영월 상동고 야구부 위기 극복
농어촌유학 등 학생 유치 총력

졸업생이 1명에 불과해 '나 홀로 졸업식'을 치러야 하는 강원도내 학교가 모두 18곳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급감 속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졸업생이 1명에 불과해 '나 홀로 졸업식'을 갖는 학교는 강원도내 18곳이다. 지역별로는 홍천과 정선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고, 화천 3곳, 삼척·횡성 2곳, 강릉·양구·고성 각 1곳이다.

18개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다. 11개 본교와 분교장 7곳이다. 분교장의 경우 본교와 졸업식을 함께 개최하나 평소 다른 공간에서 수업했기에 자신이 다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졸업장을 받는다. 본교에서 졸업하는 11명은 그야말로 '나 홀로' 졸업한다.

1 최근 5년간 강원도내 폐교 현황



학생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교 역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18개 학교 가운데 11곳은 전교생이 채 10명을 넘지 못해 생존 걱정에도 놓여있다.

전교생이 9명인 삼척 A초교는 6학년이 졸업하면 8명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입학예정 학생은 없다. 화천 B초교는 학생 대부분이 군인가정이라 수시로 학생 수가 바뀐다. 올해 졸업하는 6학년 학생도 4학년 당시에는 동급생이 있었으나 모두 전학을 떠나 혼자 남겨졌다. B초교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도 한 명만 있다"는 사실을 들은 학부모가 부담을 느껴 전학을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화천 초·중·고교장도 고성 광산

초 홀리분교장은 이번 졸업식을 끝으로 내년 3월 폐교한다.

생존 위기를 느낀 학교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삼척 C초교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내년 3월 '강원 농어촌유학'을 진행한다. 목표는 6가구로, 현재 3가구가 확정됐다.

학교가 폐광지역에 위치한 영월 상동고는 최근 2년간 신입생이 없어 전교생은 3학년 3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졸업하면 '자연폐교' 될 운명이었으나 학교와 동문회,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야구부를 신설했다. 올해 4월 3명을 시작으로 1학년 12명이 전학을 왔고, 내년에는 17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이 되면 전교생이 50명을 돌파할 것으로 학교는 전망하고 있다.

상동고 관계자는 "2025년을 목표로 농어촌자율학교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신입생이 전부 야구부원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학생도 적극 유치할 생각"이라 밝혔다.

정민영 jmy4096@kado.net

2023년 12월 26일 (화)

종합 01면

江原日報

道 글로벌혁신특구·철도망 확충 '운명의 한 주'

연말연시 '대형 국책프로젝트·SOC' 도전 결과 판가름

'27일' 특구 최종 발표 평가회... 기업혁신파크는 법사위 심사

'28일' 홍천 철도 예타 심의... GTX-B 춘천 연장도 주중 결정

속보=연말과 2024년 초 대형 국책프로젝트와 SOC사업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연말 글로벌혁신특구와 기업혁신파크 공모(본보 지난 18일자 1면 등 보도) 결과를 잇따라 발표할 전망이다. 또 강원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여부도 이번 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첫 규제프리가 적용되는 글로벌혁신특구가 27일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강원을 비롯해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전남 등 8곳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 평가회를 연다.

8개 광역지자체 중 바이오, 모빌리티, 에너지, AI데이터 등 4개 분야별로 1곳씩 4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의 최대 경쟁 상대로 대구가 꼽힌다.

춘천이 도전장을 낸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역시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일단 기업도시법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7일 법사위,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연초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며 춘천을 비롯해 포항, 당진, 거제, 아산, 순천, 담양 등이 경쟁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인센티브는 유지하고 개발 조건과 규제는 더욱 완화해 신속한 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은 공모 선정 시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신도시를 조성한다.

남진우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글로벌혁신특구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춘천시가 지원한 기업혁신파크 역시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도 시작돼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종합 02면

道 글로벌혁신특구·철도망 확충 '운명의 한 주' -1면에서 계속

영서 내륙과 홍천권 최대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철도는 오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여부도 이번 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GTX 확충 기

획 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은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예타 조사 여부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경제 07면

강원 지역총소득 증가율 전국 두번째 높아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총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민 1인당 총소득은 3,319만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강원자치도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자치도 총생산(GRDP)은 48조1,790억원(실질)으로 전년(46조7,810억원) 대비 3.0%(1조3,980억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2.6%) 대비 0.4%포인트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17.1%)과 사업서비스업(8.8%) 등 서비스 부문이 경제

관광객 늘어 경기 회복 영향 전년 대비 7.2% 늘어 '50조7천억' 도민 1인당 총 소득 '3,319만원' 전국 세번째로 낮아 최저 수준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11.5%, 광업은 10.1% 줄었다.

도내 지역총소득은 5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조4,000억원) 늘어 전국 평균(4.3%)보다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17개 시·도 중 세종(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소득 유출 규모는 2021년 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50%(2조원) 넘게 감소했다.

도민 1인당 개인소득 또한 2,239

만원으로 전년보다 147만원(7.0%) 증가, 전국 평균(6.0%)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과의 차이도 2021년 11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격차를 좁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443만원으로 전년보다 75만원(2.2%)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역총소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강원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가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GRDP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GRDP(1,972조원)에서 차지하는 강원지역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은 3,319만원으로 대구(3,105만원)와 부산(3,229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도민 소득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인들 하나로 뽐뽐 뭉쳐야 현안 해결된다

강원인들은 하나로 뽐뽐 뭉쳐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위한 한마음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공유와 협의, 협조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뤄 내야 하는 과제다. 전국의 3%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군 간 지역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인당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개발시대 에너지 보급과 국민 휴양지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은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세월 반 토막 난 땅덩어리

로 변방이자 막다른 골목이라는 공간적 폐쇄성에 갇혀 있었다. 38선, 6·25전쟁, 휴전선, 군부대, 낙후, 소외, 한계는 강원자치도의 대명사였다. 인구는 적고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 늘 지척 거리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조차 접근성이 무척 떨어지는 ‘아주 먼’ 변두리로 치부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인들의 삶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를 결성하고 도민 결집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도는 지난 21일 강원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첨단바이오 산업벨트,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강

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지원협의체 발족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와 도의회, 유관기관, 언론, 기업,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는 내년 상반기로 예고된 정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발족식에는 김진태 지사,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김현영 강원대 총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강일준 한림대 산학부총장,

이무철, 박기영, 박관희, 이영욱 도의원,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장, 정준화 시·군번영회연합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허장현 강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강원도·춘천시·홍천군 지원협의체 결성
소통하며 전국 지자체 움직임 잘 파악해야

원테크노파크 원장, 권오광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미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지원협의체 결성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자주 소통하며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사설/칼럼 21면

연말 고향사랑기부금 박차를

-타도 100억 돌파 12월 급증세...강원 초라해선 안돼

연말을 앞두고 전국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고향사랑기부금 1년 성적에 관심이 쏠릴 때입니다. 12월 중순 들어 시군별로 모금액을 공개하면서 막바지까지 독려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모금액 규모는 천차만별이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강원지역은 대개 군단위 1억원, 시단위 2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도내 시군은 대개 그 이상 모금 성과를 보인다는 발표이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금 결산 성적표 공개가 임박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강원을 능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 더 긴장하게 됩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2억원대인 원주, 강릉보다 훨씬 많은 3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달성했습니다. 고향사랑 연말 감사이벤트까지 추가적으로 마련해 기부자 참여에 더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전남도는 내일(12월 27일) 고향사랑기부금 100억원 돌파를 기념하고 전남사랑애(愛)서포터즈 43만명 모집 성공을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를 열어 2024년도 모금 열풍으로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지방재정 확충과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연중 발로 뛰어온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지자체 성적표가 공표됩니다. 마침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

금의 일석삼조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12월 들어 급증세를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애정이 어린 지역을 도왔다는 자부심에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이 공제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속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첫해의 기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순위 다툼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부금 효과에 대해 기부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홍보하려면 일정액 이상의 규모가 돼야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곧 모금액 규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주민복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 발생합니다. 모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엔 일정 규모 기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민복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효과를 기부자와 적극 소통할수록 매년 지속기부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부익부빈익빈의 지자체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빈익빈 지자체의 시발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강원도와 시군 성과가 초라하지 않도록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화)

사설/칼럼 21면

소상공인 경영 악화 대비를

-경기전망부정적,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이 예측하는 내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영업 수지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경기 악화로 매출을 유지하기조차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 기반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지역 경기도 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악재들은 자영업자들의 자구책만으로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생활 밀접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92.5%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 경영을 힘들게 했던 악재들이 내년에도 개선될 여지

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 등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올해 1~10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660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과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 압박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입니다. 응답자의 79%가 자금 지원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과밀경쟁 구조개선·폐업 및 재기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처럼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된다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넘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3곳 중 1곳 1년 내 문 닫는 신생기업, 대책은 뭔가

도내에서 창업한 기업 3곳 중 1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수도 3만개에 미치지 못하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수출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 위기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2만9,466개였다. 전년(2만9,833개)보다 367개 감소했다. 2021년(-917개)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전체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2021년 14.2%에서 지난해 13.4%로 축소됐다. 신생기업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창업 독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생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문을 연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생존한 업체 비율은 65.1%로, 1년 전(65.5%)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도내 창업기업 3곳 중 1곳은 1년 안에 폐업한 셈이다. 신생기업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년 차 55%, 3년 차 48.3%에 이어 5년 차 생존

율은 34.2%에 그쳤다. 도내 신생기업이 7년까지 버티는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도내 소멸기업은 2만798개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수는 2만4,000개였다.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공단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지자체가 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생기업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나 과격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생기업이 오래 유지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가뜰이나 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등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신생기업들이 1년 만에 경영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제 지상과제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과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제반적인 지원책이 중요하다. 업종별로 공급 과잉을 줄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자율적 규제도 절실하다. 많은 사람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폐업 상황에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신생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신생기업들의 한숨과 탄식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